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점, 신점(神點)

(고전9:1~14)

1.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3.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점, 신점(神點)>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감각점이라는 것은 피부에 흩어져 있으면서 압력이나 온도 등을 느끼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느끼는 자리.
이 감각점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냉점, 온점, 압점, 통점이 있습니다.
냉점은 차가운 것을 느끼는 점이고, 온점은 따뜻한 것 그리고 압점은 뭔가 꾹 누른다든지 하는 그런 압력을 느끼는 점이고, 통점은 아픔을 느끼는 점입니다.
냉점, 온점, 압점, 통점, 이 네 가지의 감각점이 이렇게 자극의 종류를 구분해서 느끼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손가락 끝에 바늘에 찔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찔리는 점은 한 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손가락 전체가 다 아프고, 온 몸이 다 움츠려듭니다.
이렇게 자극을 느끼는 점은 한 점이지만 그 느껴지는 느낌이 넓게 퍼져나가는 걸 지각의 방사

라 그래요, 지각의 방사.
느낌이 옆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각의 방사를 통해서,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도 넓은 범위에 퍼지고 마음으로 그 느낌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각 감각점의 분포 밀도가 달라요
그 분포 밀도는 몸 표면 1제곱cm 당 감각점이 몇 개가 분포되어 있느냐로 따집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게 통점이에요. 아픔을 느끼는 점이 제일 많습니다.
1제곱cm 당 90에서 150개의 통점이 분포되어 있고, 압점은 1제곱cm 안에 25개, 차가운 것을 느끼는 냉점은 6~23개,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는 온점이 제일 적어서, 없는 부분도 있고 3개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냉점이 없으면 얼음덩어리를 갖다 대도 차가운 걸 못 느끼는 겁니다.
만일에 통점이 없잖아요? 아픔을 느끼는 점이 없는 부분이면, 그곳에 바늘로 찔러대도 아무리 바늘로 수십 번, 수백 번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 감각점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렵다든지 간지럽다, 이런 것은 압점과 통점에서 작용되는 압각과 통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감각점이 신체 표면, 피부와 점막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응용을 해 가지고, 마음의 감각점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마음에도 통점이 있고, 압점이 있고, 냉점이 있고, 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고, 차가움을 느끼고, 마음에 큰 부담을 무게를 느끼고, 마음이 아픔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조금 응용을 해 가지고 마음의 감각점을 마음이 느끼는 대상별로 분류를 해 보면, 사람을 느끼는 인(人)점이 있고, 물건과 사물을 느끼는 물(物)점이 있고, 그리고 일 사건들을 느끼는 사(事)점이 있고, 추상적인 가치를 느끼는 염, 생각 염자 염(念)점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더 많은 분류가 있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전문적인 생물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충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마음의 감각점이 분류되든지 간에,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신점(神點)이에요.
신을 감각하는 신각(神覺)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신각점과 다른 감각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관계 속에서 재미있는 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뭔가 손에 딱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여?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 왔지만 그 아들에게 떡하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것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느낌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갖게 되는 어떤 느낌, 내 마음속에 남게 되는 확실한 추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가렵습니다, 간질간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게 왜 그러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는 신점이, 사람을 느끼는 인점, 사물을 느끼는 사점, 물점 그리고 일과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을 느끼게 되는 일 사(事)자 사점,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표면 위에 신점의 분포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마음표면 전체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점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충만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느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 뜨겁게 연애하고 있는 연인들 사이에서, 막 달아 올랐어요.
이럴 때, 애인 말고는 마음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여자로 남자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한 사점이 다 죽어버립니다.
애인에 대한 느낌만이 강화되는 거예요, 애인에 대한 느낌만이 충만해 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지배적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밀려나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라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충만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든지 간에, 어떤 추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든지 간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sensitive 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으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세웠고 고린도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고린도교인들의 마음의 표면 위에, 신점의 밀도가 1제곱cm 당 100개, 아니 1,000개, 10,000개가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느낌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린도교인들의 편지 속에 '사도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다른 사도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바울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게다가,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바울선생님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듣고 보면 더 기가 막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옛날 초대교회 때, 고린도교회만 예를 들더라도 그 고린도교회를 베드로가 아마 순회를 하면서 들르기도 하고, 주님의 형제들 야고보라든지 하는 그런 주님의 형제들,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들로써 활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교회에 방문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 분들의 생계비라든지 그 분들의 선교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후원금을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태가, 뭐 연봉식으로 지출을 했는지, 다달이 보냈는지, 아니면 가끔 한 번씩 보냈는지, 올 때마다 보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린도교회의 재정지출의 항목에 이 사도들에 대한 지출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그 고린도교회를 창시한 사도바울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지출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바울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걸 원치 않고 교회를 떠났고, 그 뒤로 사도들이 그 근처를 지나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머무를 때마다, 그 사도들을 위한 재정 지출의 항목들이 생겨났는데, 정작 교회를 세운자인 사도바울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선교를 하고 다니고,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에서 사도바울을 향한 지출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바울은 이것을 끊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 고린도교회의 재정시스템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출항목을 아예 삭제 하게끔 이끌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의 감각점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신점으로 가득차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같은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의 의지와 뜻이 더 아주 집요하게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복음 사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신점의 분포도를 늘리겠다는 이 의도가 아주 집요하게 깊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서 교인들의 마음이, 좁쌀알만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인(人)점,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써, 교회의 창시자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낌을 받게 되는 인(人)점을 완전히 멸절하는, 인(人)점 제로 상태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배려하고, 교회 내에서 재정에 관해서 논의하고 얘기할 때 이슈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의 감각점을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차지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의 장애를 일으키게 하지 않기 위해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경비지출을 마다했습니다.

그러나 게바나 주님의 형제들이나 다른 사도들은,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후원금 같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은 것은 마땅하다, 마땅한 일인데도 내가 안한 것은, 내 마음속의 소원이 너희들 마음이 느끼는 그 감각점에서, 내가 차지하는 부분, 내가 차지하게 될 부분, 나에 대해서 재정지출을 논의하고, 내가 이슈가 되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신경 쓸 그 점, 몇 점까지도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나에 대한 생계지출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라고 그랬고 항목 자체를 없애버리도록 이끌었는데, 그 점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말이냐?' 라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간의 재정적인 신경전이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놓고도.
'오직 바라는 것은 나한테 신경 쓸 마음의 분량이 있으면, 그 마음의 느낌의 감각점을 하나님을 느끼는데 다 쓰라!'
이 의도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고린도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자격지심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형제들은 공생애 때의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인데, 사도바울은 직접 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아! 참 희한한 거예요.
특히 이 돈과 관계에 대해서는 참 미묘한 심리작용이 발견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법정스님이 무소유를 주장을 합니다.
전부 법정스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따라 합니다.
이게 돈이 갖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법정스님에 대해서, 두려운 경외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스님의 존재감이 무겁게 자리 잡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를 들어 회장님 앞에 서 있는 간부들, 재벌그룹의 회장님이 있고, 간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전무, 상무 쭉 있어요.
이들이 회장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의 그 조심성과 그 경외심,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회장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존경심이 가득하게 되고, 경외심이 가득하게 됩니까?
그 재벌그룹이 2013년에 수조 원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 내는 일이 회장님 한 분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 분의 손끝에서 지출되도록 결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심이 있고, 권세를 느끼게 되고,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외심, 두려움, 권세, 권위, 세상의 가치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에게 보직이 결정이 됩니다. 담임목사님의 재량권 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보직과 중요하지 않은 보직은 어떻게 결정 되느냐?
그 직임에 의해서 지출되는 예산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가.

결국, 교회 예산이 많이 지출되면, 고린도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많이 가는 쪽이 권위가 있는 거고, 권세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느끼는 신점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같이 신앙이 정말 미천한 자도 사도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사도바울이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일 고마워요, 제일 고마워.
제가 삼성 TV를 갖고 있지만, 이 건희 씨가 고마워요, 그러나 그 고마움이 비교가 될 수가 없지요.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게 뭐 어느 회사 거, 다 고마워요.
밥 먹는 거 농사짓는 게 고맙고 다 고마워요.
그러나 사도바울처럼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가능했겠나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는 신점이 있으니까.

신점을 느낀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물(物)점이 강한 거예요, 물점의 분포도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대로.
교계도 마찬가지에요. 몇 백 억 몇 천 억짜리 예배당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나타나면, 목사님들이 벌써 그 분에게 권세를 느끼고 권위를 느낍니다, 벌써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교계도 똑같아요, 물점이 엄청나게 분포도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점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점점.
신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관한 속성이 있잖아요? 전능하셔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러한 하나님에 속한 속성들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전능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나의 아버지로써 내게 주시는 사랑의 크기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인데,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신 사건이 뜻하는 그 사랑의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걱정할 일이 없고, 두려워 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신점의 분포도가 내 마음의 표면 위에 확장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생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생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아는 거 갖고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신점이 있어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느껴지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이시고, 어디나 계시고, 전지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알게 되면서, 그렇게 신점의 분포도가 극히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신점의 분포도를 늘려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재정지출을 마다하게 된 그 의도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에 대해서 신경 쓸 힘이 있고, 나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십자가를 한 번 더 붙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신점의 분포도가 확장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느끼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 인(人)점이 있습니다. 인점에는 아내와 남편을 느끼는 거고, 가족을 느끼는 거, 동료를 느끼는 거, 사람 일이면 모두가 포함 되겠죠?
사람에 대해 느끼는 거, 아니면 물점, 돈에 대해서 아니면 사물에 대해서 명품에 대해서 아니면 자동차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속에 감각점이 작용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느끼고 깊이 빨려 들어가기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럴 때마다 신점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시간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신점의 분포도는 비례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비례해서.

그냥 믿으세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한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느낌을 갖게 되려고 하고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막고 차단하면, 약속을 따라서 내 마음의 신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신점을 늘리려고, 나를 느끼는 감각점조차도 하나님을 느끼는 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나를 향한 재정지출을 다 금했건만, 너희는 마치 내가 사도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니 개탄할 일이 아니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어떡하든지 단 한 점이라도 하나님을 느끼는 신점을 확장시키려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나를 위한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한 나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신점의 분포도를 늘리기 위해, 오늘도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느끼려 고하는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실제 신점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느껴지게 하시며,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느낌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